「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2016 가을): 133-154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0 No.3 (2016 Autumn)
http://dx.doi.org/10.20484/klog.20.3.07

삶의 질 특성에 따른 지자체 유형화 및 정책방향: 충청북도를 사례로

배 민 기*
조 택 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삶의 질의 수준을 평가하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별 특성 및 유형화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삶의 질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9개 부문 32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삶의 질 지표를 선정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분석, 요인분석,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충북 전체의 삶의 질 수준은 4.59/7.0점으로 나타났으며 진천군의 삶의 질 수준이 4.79/7.0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가문화부문이 4.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형화 분석결과, 청주시와 충주시와 같은 도시유형, 진천군, 음성군과 같은 성장유형, 옥천군, 영동군과 같은 대도시 근처의 농업유형,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과 같은 자연친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사한 시군들 간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부여하거나 균형발전 정책 및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삶의 질 지표, 유클리디안 거리, 다차원척도법, 맞춤형 정책, 만족도

Ⅰ. 서론

최근 경제적 관점의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세계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통계청, 2016). 우리나라는 단기간 도시·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왔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경제적 격차 심화, 높은 자살률, 예기치 않은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전반적인 활력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이미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OECD의 Better Life Index, European Commission의 EU Social Indicators, UN의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Unicef Office of Research의 Innocenti Report Card 등 삶의 질 관련 보고서들이 발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12개 영역 81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변화추세를 공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행복, 안전 등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들이 국가의 핵심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국가단위에서의 거시적인 지표들이며, 물리적인 지표들이 많아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국민들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용률, 하루평균여가시간, 1인당 주거면적 등 몇 개의 대표 지표 값으로는 각 도시별 삶의 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각 기초지자체별로 삶의 질 수준이 다르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특히 삶의 질은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더 크지만 이를 반영한 지표도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거시적인 대표지표를 통해 국가 단위에서 삶의 질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단위에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정책도 병행이 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다차원척도를 활용하면 삶의 질 특성에 따라 지자체간 유사 및 상이성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때문에 정책대안 마련에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삶의 질 지표를 선정한 후 충청북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의 수준을 평가하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시군 특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각 기초지자체들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유형화를 통해서 유사한 시군들 간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부여하거나 균형발전 정책 및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삶의 질에 대한 고찰

1. 삶의 질의 의의

삶의 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식주와 같은 기본 요건의 충족으로부터 교육, 보건 등 문화적·물질적 최저생활 보장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개인의 삶의 질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선호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삶의 질도 그 사회가 처한 여건에 따라 내용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다. 과거의 삶의

질은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에 그 기준이 있었다면, 현대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행복한가, 문화생활을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가, 얼마나 쾌적하고 건강한가?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김현식·박세훈, 2005). 기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복지(well-being), 심리적 복지, 주관적 복지, 생활만족(satisfaction), 행복, 긍정적·부정적 감정(positive and negative affect) 등의 개념으로 사용하거나(Gorge, 1992; Rice, 1984), 보다 포괄적이고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Frisch, et al., 1992). 삶의 질은 결혼만족, 직업만족, 공동체만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주관적인 정신의 상태(subjective state of mind)로서 각 구성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Pavot and Diener, 1993). OECD는 삶의 질을 인류의 행복(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한 삶과 관련된 사회적 척도로 정의한바 있으며, 우리나라 통계청(2016)은 삶의 질을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고 한바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적 관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해당 사회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 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진아외, 2015). 이상을 종합해 보면, 삶의 질이란 인간이 객관적 생활조건 및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로부터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삶의 질의 구성과 측정

삶의 질 관련 연구의 핵심은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 삶의 질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특정한 조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평가는 조건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단순한 물질적 조건을 포함하여 건강상태, 주거환경, 문화생활, 각종 욕구의 만족도 등과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마다 삶의 질 구성요소들에 대해 다르게 정의해 왔는데 경제, 보건, 자연 및 생활환경 등 삶의 영역별로 구성하기도 하고, 풍요성, 보건성, 쾌적성 등을 속성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삶의 지표는 소득·소비·자산, 교육, 시민참여, 고용·임금, 건강, 안전, 문화·여가, 환경, 주거·가족공동체, 주관적 웰빙, 사회복지로 구분하고 있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삶의 질은 어느 특정분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올바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주관적 지표만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과정에 왜곡을 가져오고,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는 비합리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Veenhoven, 2002), 삶의 질은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질 측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Noll, 2004). 기존의 연구에서도 통계연보를 활용한 물리적인 지표를 활용하거나(김진욱, 2000; 이상호, 2008), 주관적인 지표를 적용하거나(박대식·최경환, 2002),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임근식,

2012; 김진아외, 2015)가 있었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보고서에 따르면 물질적 복지와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삶에 대한 만족으로 측정한 주관적 웰빙을 반드시 함께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tiglitz, et al., 2009).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인을 성격에 따라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부문은 좀 더 구체적인 생활요소로 구성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부문의 설정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삶의 질 분석 방법은 기술분석을 기반으로 요인분석(이승철, 2011; 김진아외 2인, 2015), 군집분석을 활용한 유형화(이상호, 2008), Q방법론(이지은·이재완, 2014)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와 요인분석을 이용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지자체별 삶의 질 특성을 해석하였다.

3.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국제경영개발(IMD)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일본 사회경제생산성 본부의 '풍요 지수' 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 UNDP는 1990년부터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서 인간개발지수(HDI)를 발표하고 있는데 장수(A long and healthy life), 지식(knowledge), 여유 있는 생활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에 해당하는 삶의 3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측정되고 있다. 장수는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이 중요한 지표가 되며, 지식은 문맹률(adult literacy rate)과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 여유 있는 생활수준은 GDP 또는 1인당 실질 GDP가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UNDP는 유럽의 28개국을 대상으로 유럽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EQLS, the European quality of life)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항목으로는 건강, 고용, 소득, 교육, 가족, 사회참여, 주택, 환경, 교통, 안전, 여가, 생활만족도로 구성되고 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은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생태 효율을 대상으로 'THE HAPPY PLANET INDEX'을 산출하고 있는데 주관적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생태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영국 레가툼 위원회(The Legatum Institute)에서는 '레가툼 번영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경제, 기업가 정신과 기회, 거버넌스, 교육, 보건, 안전 및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자본의 8개 부문을 종합해 110개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수이며, 국민들의 1인당 소득과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계청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통계작성의 어려움과 국가 및 단체장의 선출제도나 정책 평가의 성격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실정이다. 경남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지표는 10개 영역, 64개 지표로 구성되었는데 10개 영역으로는 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정부와 사회참여로 구성되

어 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지표는 8개 영역(지역경제, 교육·문화, 교통, 주거·환경, 정보화, 일반행정, 사회복지, 사회안전)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한 바 있다. 통계개발원에서는 2009년에 10개 영역, 26개 세부 주제로 구성된 '삶의 질' 지수를 제시한바 있는데, 10개 영역으로 소득·소비, 건강, 노동, 교육, 주거, 안전, 가족, 환경, 사회통합, 문화·여가 부문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이상호(2008)는 교육, 복지, 생활환경, 문화, 여가부문을 삶의 질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김진아외(2015)는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평가지표로 사회, 경제, 교육·문화, 보건·의료,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 정보화를 선정하였으며, 임정빈 외(2012)는 삶의 질 측정지표를 경제적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으로 구성하였다. 정선기(2007)는 경제, 안전, 편리, 쾌적, 사회·문화적 삶의 영역을 각각 지표로 선정한바 있다. 삶의 질 분석결과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복지와 안전부문(강창민외, 2010), 주거환경, 교통, 공공안전(이경태외, 2010) 등이 중요한 지표로 규명된 바 있다.

Ⅲ. 연구방법

1. 삶의 질 평가지표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 9개 부문은 소득·소비, 근무여건, 교육, 여가·문화, 보건·복지, 교통, 재난·안전, 주거환경,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세부지표는 32개로 구성되었다. 근무여건은 소득과 소비의 원천이 되고 교통은 주거환경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민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한가를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였다(〈표 1〉. 참조).

〈표 1〉 삶의 질 지표 구성

부문 (9개)	세부 지표
1. 소득 및 소비수준	필요한 것의 소비에 불편이 없다 우리지역 소득분배는 공평한 편이다 우리 가정의 재정상태는 건전하다
2. 근무여건	나는 직무에 스트레스 없이 만족한다 내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의 근무환경에 만족한다 나의 근로시간은 적당하다
3. 교육환경	우리지역의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 지역의 교육시스템(학교수업, 방과후 수업, 평생교육, 저소득교육지원 등)이 만족스럽다 학교, 학원, 교육강좌, 훈련 등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된다.
4. 여가 및 문화생활	지역에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 나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한다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나는 지역에서 남을 위해 봉사한다
5. 의료·복지서비스	나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지역의 의료시설은 만족스럽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체계가 잘 되어있다
6. 교통여건	지역의 도로망은 잘 정비되었다 지역의 교통통행은 원활하다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지역에서 주차하기가 용이하다
7. 재난과 안전관리	지역은 재난이 적게 발생한다 지역의 치안은 잘 이루어진다 지역의 구난체계는 잘 갖추어졌다 지역 안전교육·훈련은 잘 이뤄진다
8. 주거환경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한다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지역의 환경은 깨끗하다 지역은 소음이 없고 조용하다
9.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	이웃 및 동료와 생활이 행복하다 지역의 정치 및 행정에 만족한다 나는 주변에 모임이 많다

2. 자료의 수집

설문조사는 응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별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 설문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 수준의 측정방법은 각 영역별로 세부 결정요인을 선택한 뒤 각 요인에 대해 불만족(1점)~만족(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모집단의 성격을 정확히 알려면 표본 수가 많을수록 좋으나 경제적·시간적·물리적 제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배분하였다. 설문수를 배분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인구비례이나 충북의 경우 청주권에 인구가 집중되어있어[1] 이를 적용할 경우 인구가 적은 군은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가능한 전체 표본 수를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수준에서 균등 분배 한 후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약간의 조정을 하여 지역별 설문 수를 정하였다. 전체 설문 부수는 유효 설문지 기준으로 1,619명을 조사하였으며 각 청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은 약 130여부로 균등하게 분배하였으며 청주는 약 170명을 설문조사 하였다. 기타 성별, 연령별 등도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보면 남녀의 성별 비중은 거의 유사하며 연령별 비중은 30대와 40대가 거의 동일하게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50대의 비중이 크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대졸이 다음으로 많았다. 가구의 월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대가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이 가구비중이 다음으로 많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사무직, 농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 2014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으로 청주시는 충북인구의 52.7%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인적특성		응답자수(비중)		인적특성		응답자수(비중)	
성별	남자	813	49.8%	가구 월소득	100-200만원	165	10.2%
	여자	806	50.2%		200-300만원	554	34.2%
연령	20대	229	14.1%		300-400만원	604	37.3%
	30대	405	25.0%		400-500만원	220	13.6%
	40대	402	24.8%		500만원 이상	76	4.7%
	50대	353	21.8%	직업	사무직	385	23.8%
	60대 이상	230	14.0%		전문직	51	3.2%
학력	초졸이하	84	5.2%		자영업 및 서비스직	535	33.0%
	중졸	266	16.4%		농림어업 및 축산업	315	19.5%
	고졸	710	43.9%		전업주부	266	16.4%
	대졸	521	32.2%		기술직 및 생산직	59	3.6%
	대학원졸	38	2.3%		학생 및 무직	8	0.5%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식도를 기반으로 한 시군 삶의 질 수준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기술분석은 SPSS ver.18(SPSS Inc, 2013)을 활용한다. 시군유형화는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를 활용한다. 다차원 척도법은 소비자 행동의 기본이 되는 지각과 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pard(1962)와 Kruskal(1964)같은 심리측정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상표를 비롯하여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응답자의 이상점과 같은 자극점들간의 복잡한 다차원 관계를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상에 단순한 구도로 시각화 하여 나타내주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다차원 척도법은 응답자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각과 선호도에 관계되는 태도를 조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서 시장세분화, 제품수명주기, 판매업체평가, 광고매체 선택 등을 결정하는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기업이나 상품 및 서비스, 속성, 선호점 등을 지각할 때에는 나름다로의 객관적인 차원을 비교기준으로 가지게 되며, 이를 토대로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평가대상들 간의 유사성 혹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리를 알고 있을 때 평가대상에 대한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이 기법은 평가대상을 평가하는 차원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무형의 감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비교기준으로 사용되기 힘든 분야의 연구나 포지셔닝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평가대상과 평가자(응답자)를 하나의 지각도(Single overall map)상에 나타냄으로써 고객들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부문별 통계자료는 측정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해서 SPSS의 다차원척도법 알고리즘인 PROXSCAL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간의 표준화 점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ALSCAL 알고리즘은 최적화 함수인 S-스트레스가 상위와 거리의 차이에 대한 국지적 구조표현에 취약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지적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PROXSCAL[2]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9개 분야별 삶의 질 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다차원척도법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거리행렬표 작성 및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포지셔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각 분야별 2차원 공간상에서 나타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2개의 요인을 가지는 요인분석을 수행 한 후 요인 값을 기준으로 각 EF의 위치를 포지셔닝 맵에 중첩시켜 표현하였다. 요인분석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시군사이의 세부 삶의 질 지표들간의 내재된 관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한 단순구조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각회전인 Varimax를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고찰

1. 통계적 특성

1) 지자체별 삶의 질의 통계적 특성

충청북도 전체의 삶의 질 수준의 평균값은 7점 만점에 4.59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가문화부문이 4.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삶의 질 지표중 만족도가 낮은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여가문화, 교육환경, 소득소비, 보건복지, 근무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 중에서는 진천군이 4.79점으로 가장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괴산군이 4.41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3〉 참조).

〈표 3〉 삶의 질 수준에 대한 통계적 요약

구분	소득소비	근무여건	교육환경	여가문화	보건복지	교통여건	재난안전	주거환경	공공서비스	평균
충북전체	4.46	4.52	4.44	4.16	4.47	4.81	4.85	4.91	4.65	4.59
청주시	4.34	4.40	4.66	4.43	4.86	4.75	4.78	4.60	4.68	4.61
충주시	4.62	4.59	4.86	4.39	4.80	5.14	4.90	4.99	4.77	4.78
제천시	4.37	4.58	4.37	4.12	4.37	4.63	4.83	4.81	4.59	4.52
청원군	4.58	4.47	4.53	4.18	4.44	4.88	4.82	4.90	4.66	4.61
보은군	4.35	4.53	4.23	4.08	4.18	4.67	4.82	4.95	4.58	4.49
옥천군	4.42	4.43	4.27	4.17	4.42	4.89	4.67	4.75	4.70	4.52
영동군	4.47	4.45	4.29	3.99	4.21	4.48	4.80	4.91	4.61	4.47
증평군	4.52	4.63	4.43	4.11	4.39	4.93	4.81	5.02	4.50	4.59
진천군	4.61	4.75	4.52	4.11	4.58	5.11	5.18	5.30	4.96	4.79
괴산군	4.33	4.40	4.23	3.95	4.42	4.57	4.61	4.77	4.45	4.41
음성군	4.49	4.61	4.53	4.17	4.53	5.14	5.18	5.08	4.58	4.70
단양군	4.49	4.49	4.33	4.11	4.33	4.50	4.78	4.92	4.65	4.51

2) PROXSCAL은 정규화된 원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2) 삶의 질 부문별 통계적 특성

(1) 충북도민의 소득·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만점을 기준으로 4.46점 수준이며, 충주시(4.62), 진천군(4.61)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괴산군, 청주시가 낮았다. 세부지표 중에서는 재정 건전성(4.42), 소비의 편리함(4.40), 소득분배의 공평성(4.12)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2) 근무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52점으로 나타났다. 진천군(4.75), 증평군(4.63)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청주시(4.40), 괴산군(4.40)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는 근로시간(4.45)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근무환경(4.44), 업무 스트레스(4.28)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육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44점이며, 충주시(4.8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청주시(4.66)로 나타났다. 타 영역에 비해 교육영역은 충주시와 청주시가 전 영역에서 타 지역보다 큰 편차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4) 여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16점이며 청주시(4.43)와 충주시(4.39)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괴산군(3.95), 영동군(3.99)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세부지표별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만족도(4.35)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취미생활(4.00), 문화생활(3.96), 지역봉사(3.5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응답자는 의료·복지 분야에서 4.47점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주시(4.86), 충주시(4.80), 진천군(4.58)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은군(4.18), 영동군(4.21)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시스템(4.22), 의료시설(4.20)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교통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81점 수준으로 충주시(5.14), 음성군(5.14)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단양군(4.50), 영동군(4.4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부 지표에서는 도로의 정비(4.95)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고 교통통행(4.86), 대중교통(4.64), 주차의 용이성(4.44)의 순서로 나타났다.

(7) 응답자의 재난·안전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4.85점으로 나타났으며 진천군과 음성군이 5.18점으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괴산군(4.61), 옥천군(4.67), 청주시와 단양군(4.78)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의 경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5.09점으로 가장 높고, 지역의 치안(4.89), 구난체계(4.60), 예방차원의 안전훈련(4.37)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주거환경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91점으로 진천군이 5.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주시(4.60), 옥천군(4.75) 등의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부지표를 보면, 주변환경의 깨끗함(5.14), 소음으로부터의 정숙성(5.13)의 만족도가 높았다.

(9)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65점 수준인데 진천군이 4.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괴산군(4.45)과 증평군(4.50)이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표에서는 이웃에 대한 만족도가 4.67점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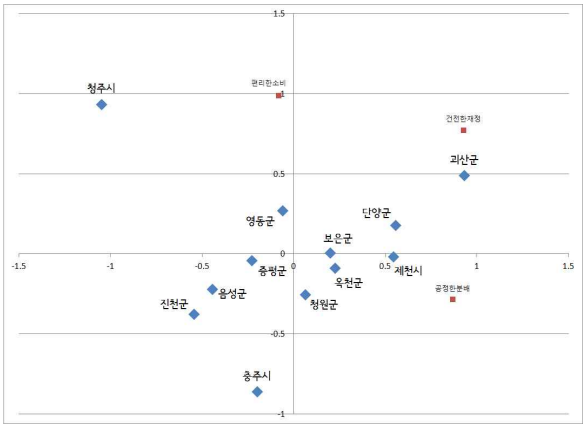
2. 부문별 지자체의 삶의 질 특성 및 유형화 분석

1) 소득 및 소비수준 부문

소득 및 소비수준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먼저, 소비의 편리함 부문은 청주시(4.73), 충주시(4.65) 등 도시지역과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과 음성군이 4.4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소득분배의 공평성 부문은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인데 충주시(4.25), 제천시와 진천군(4.1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 3.89점의 만족도로 크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재정의 건전성 부문은 진천군(4.58), 음성군(4.54)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괴산군은 4.20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득 및 소비수준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는 충북의 여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의 편리성" 부분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주시는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공평성이나 본인의 재무상태와는 별개로 충북에서 제일 큰 도시로서 소비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소비편리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주시는 세 기준점 사이에 위치해 세부 항목별 만족도 간에 동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기준 중 재정건전성과 거리가 멀어 '소비편리성'과 '분배의 형평'은 상호연관이 있으나 재정건전성과는 연계가 약한 형태이다. 그 외에 인구가 많고 제조업 비중 높은 진천음성과 전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관련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낮은 단양제천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볼 수 있다.

〈그림 1〉 소득과 소비수준의 시군특성 및 유형



	소비편리함	소득분배공평	재정건전성
충북전체	4.40	4.12	4.42
청주시	4.73	3.89	4.47
충주시	4.65	4.25	4.45
제천시	4.25	4.17	4.33
청원군	4.45	4.16	4.41
보은군	4.31	4.16	4.41
옥천군	4.34	4.14	4.39
영동군	4.33	4.07	4.44
증평군	4.33	4.13	4.52
진천군	4.48	4.17	4.58
괴산군	4.16	4.12	4.20
음성군	4.48	4.14	4.54
단양군	4.17	4.14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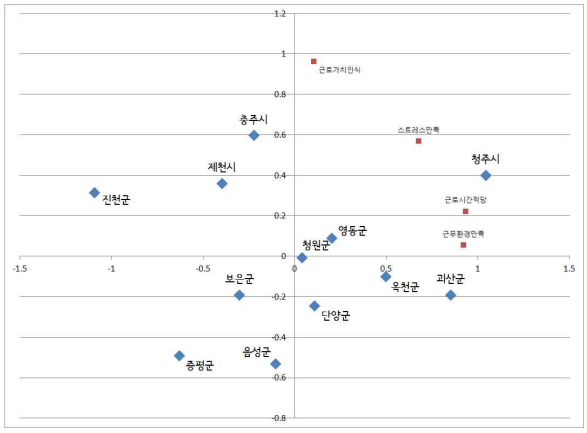
2) 근무여건 부문

근무여건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진천군(4.55), 증평군(4.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청주시(3.86)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가치 및 중요성의 인식 부문에서는 진천군(4.40), 충

주시(4.36)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음성군(4.0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진천군(4.59), 보은군(4.58)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괴산군(4.1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진천군(4.75), 증평군(4.6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주시(4.22)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근무여건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청주는 4가지 세부지표 값들이 대부분 하위권 내지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도시이나 근무 강도가 세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며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충주·제천·진천은 2사분면에 위치하는데 세 지역 모두 각 세부지표에서 양호한 만족도 보이고 있다. 세 지역중 진천군이 떨어져 있는 것은 세부지표 영역에서 진천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3사분면에 있는 증평, 음성, 보은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양호한 편이다.

〈그림 2〉 근무여건의 시군특성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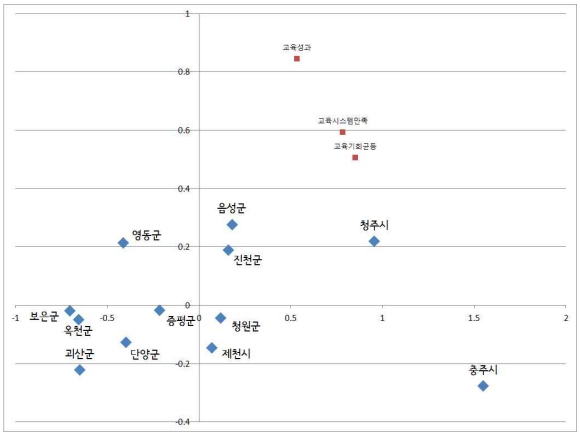
	스트레스	중요업무	근무환경	근로시간
충북전체	4.28	4.18	4.44	4.45
청주시	3.86	4.11	4.28	4.22
충주시	4.45	4.36	4.39	4.45
제천시	4.34	4.35	4.54	4.47
청원군	4.23	4.18	4.48	4.41
보은군	4.23	4.17	4.58	4.55
옥천군	4.19	4.07	4.35	4.33
영동군	4.32	4.15	4.45	4.32
증평군	4.54	4.09	4.56	4.64
진천군	4.55	4.40	4.59	4.75
괴산군	4.27	4.19	4.17	4.29
음성군	4.27	4.05	4.48	4.60
단양군	4.23	4.09	4.48	4.43

3) 교육환경 부문

교육환경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충주시(4.59)와 청주시(4.49)가 높게 나타났으며 괴산군(4.05)과 단양군(4.09)이 타 지역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충주시(4.55)와 청주시(4.41)가 높게 나타났으며 옥천군(4.03)과 보은군(4.05)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타 영역에 비해 교육영역은 세부 영역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주와 충주시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차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환경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충주와 청주의 분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육환경의 세부지표 모두에서 충주가 1위, 청주가 2위이며 타 지역과 편차가 크다. 음성·진천은 음성 진천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단위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나머지 지역 중에서 보은, 옥천, 괴산은 근접해 있으며 실제 만족도 결과도 대부분의 세부지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3〉 교육환경의 시군특성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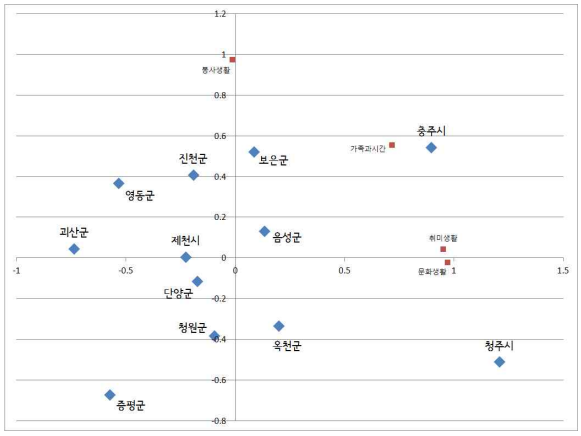


	학생우수	교육여건	교육기회
충북전체	4.37	4.24	4.21
청주시	4.53	4.49	4.41
충주시	4.70	4.59	4.55
제천시	4.45	4.20	4.17
청원군	4.44	4.25	4.17
보은군	4.22	4.11	4.05
옥천군	4.21	4.12	4.03
영동군	4.22	4.15	4.20
증평군	4.34	4.17	4.14
진천군	4.38	4.29	4.25
괴산군	4.20	4.05	4.11
음성군	4.37	4.34	4.23
단양군	4.30	4.09	4.14

4) 여가·문화환경 부문

여가·문화환경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취미생활의 영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청주시(4.41)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괴산군(3.80), 진천군(3.81)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청주시(4.75), 충주시(4.52)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반면, 증평군(4.02)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생활의 영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청주시가 4.25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괴산군(3.73), 영동군(3.79)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여가·문화환경 영역의 세부지표에서 지역봉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청주시와 충주시의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4〉 여가·문화환경의 시군특성 및 유형



	취미생활	가족시간	문화생활	지역봉사
충북전체	4.00	4.35	3.96	3.55
청주시	4.41	4.75	4.25	3.44
충주시	4.27	4.52	4.14	3.86
제천시	3.84	4.31	3.94	3.52
청원군	3.99	4.18	4.02	3.45
보은군	4.02	4.45	3.86	3.73
옥천군	4.14	4.27	4.03	3.48
영동군	3.83	4.20	3.79	3.67
증평군	3.97	4.02	3.89	3.27
진천군	3.81	4.45	3.87	3.64
괴산군	3.80	4.17	3.73	3.50
음성군	3.95	4.50	3.96	3.55
단양군	3.91	4.29	3.95	3.48

여가·문화환경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청주와 충주가 떨어져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주가 지역봉사를 제외한 여가문화환경 세부지표 전반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충주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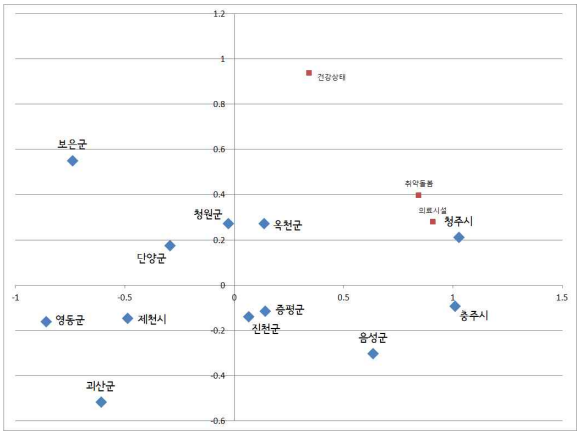
역봉사 수준에서 1위를 하였기 때문에 청주와 충주의 거리를 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증평군은 문화생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증평군민의 대부분이 인근의 청주시에서 여가·문화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보건·복지 환경 부문

보건·복지환경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청주시와 음성군이 5.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괴산군(4.73), 영동군(4.77)은 상대적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청주시(4.71)와 충주시(4.59)에서 높은 반면, 보은군(3.73), 영동군(3.83)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시스템의 만족도는 충주시에서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은군(3.96)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환경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청주, 충주, 음성 세 지역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환경의 세부지표에서 상위 부문에 자리하고 있다. 세 지자체간에도 편차가 존재하는데 청주와 음성은 개인건강상태, 청주는 지역의료시설, 충주는 의료시스템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은 따로 떨어져 있는 양상인데 지역의료시설과 의료시스템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보건·복지 환경의 시군특성 및 유형



	건강상태	의료시설	의료체계
충북전체	4.93	4.20	4.22
청주시	5.07	4.71	4.41
충주시	5.04	4.59	4.49
제천시	4.83	3.94	4.17
청원군	4.95	4.27	4.11
보은군	4.95	3.73	3.96
옥천군	4.96	4.37	4.15
영동군	4.77	3.83	4.08
증평군	4.94	4.19	4.29
진천군	4.91	4.23	4.27
괴산군	4.73	4.14	4.11
음성군	5.07	4.17	4.42
단양군	4.93	4.02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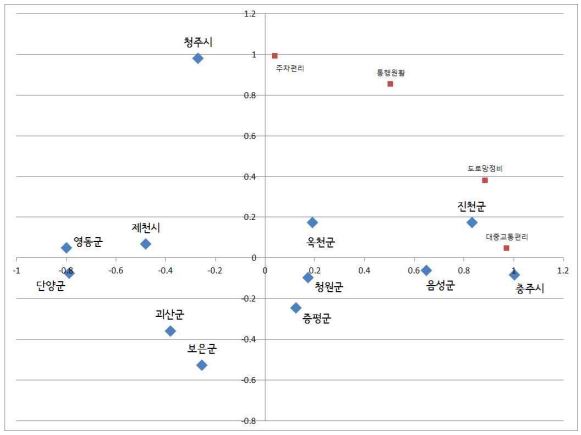
6) 교통환경 부문

교통환경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도로의 정비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진천군과 음성군이 5.3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단양군(4.54)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통통행의 원활함에 대한 영역에서는 충주시(5.23), 진천군(5.12), 음성군(5.11)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주시(4.58)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충주시(4.95)와 진천군(4.9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주시(4.93)가 뒤를 이었다. 주차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가장 적었는데 충주시(4.78)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가장 큰 도시인 청주시(3.95)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교통환경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2사분면에 동떨어져 있는 청주는 주차용이성과 교통통행에서 충북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충주, 진천, 음성은 세부지표에서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충주는 도로정비 2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모두에서 1위, 진천은 도로정비와 대중교통 1위, 교통통행 2위 등 최상위권, 음성은 도로정비 1위, 교통통행 3위 나머지 중상위권 등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단양, 영동은 대부분 영역에서 하위권이나 특히 교통통행과 주차용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하위권이며, 괴산, 보은은 대중교통에서 최하위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교통환경의 시군특성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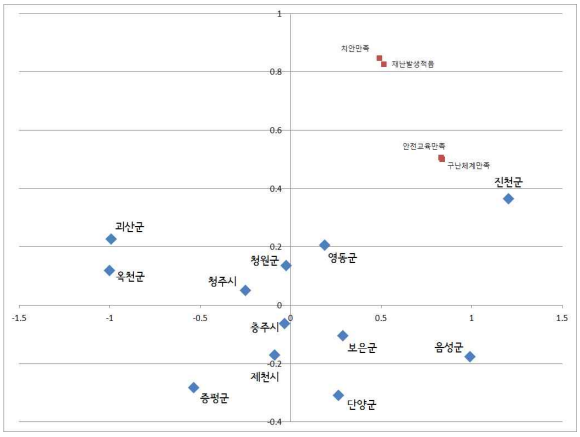
	도로정비	교통통행	대중교통	주차용이
충북전체	4.95	4.86	4.64	4.44
청주시	5.11	4.58	4.93	3.95
충주시	5.26	5.23	4.95	4.78
제천시	4.80	4.70	4.48	4.28
청원군	4.89	4.92	4.71	4.64
보은군	4.77	4.84	4.32	4.63
옥천군	4.98	4.95	4.78	4.45
영동군	4.61	4.62	4.42	4.17
증평군	5.02	4.92	4.55	4.61
진천군	5.33	5.12	4.95	4.61
괴산군	4.73	4.78	4.36	4.52
음성군	5.33	5.11	4.70	4.58
단양군	4.54	4.64	4.44	4.25

7) 재난·안전환경 부문

재난·안전환경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거주지역에 대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음성군(5.55)과 진천군(5.48), 보은군(5.18)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옥천군(4.69), 괴산군(4.71)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갖는 신뢰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역의 치안에 대해서는 진천군(5.34), 음성군(5.33), 보은군(5.07)에서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환경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1사분면에 위치한 진천군은 전체 세부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괴산, 옥천은 세부지표 모두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타 지역 중에서 음성군이 타 지역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음성은 대부분 영역에서 진천군 다음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재난 발생의 경우는 오히려 음성군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림 7〉 재난·안전환경의 시군특성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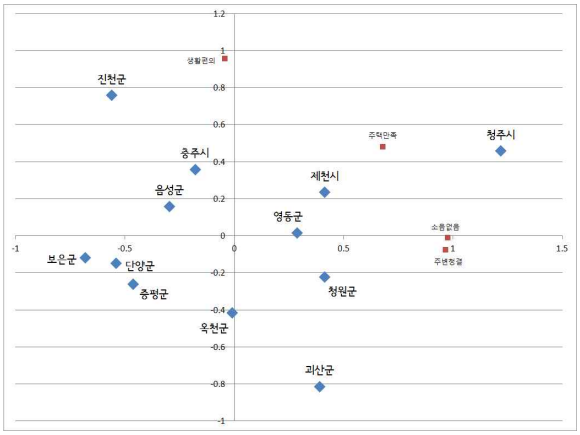


	재난적음	지역치안	구난체계	안전훈련
충북전체	5.09	4.89	4.60	4.37
청주시	4.96	4.74	4.55	4.37
충주시	5.05	4.89	4.58	4.39
제천시	5.10	4.89	4.55	4.34
청원군	5.05	4.78	4.61	4.45
보은군	5.18	5.07	4.62	4.42
옥천군	4.69	4.57	4.34	4.14
영동군	5.11	4.81	4.77	4.43
증평군	5.11	4.64	4.47	4.20
진천군	5.48	5.34	4.96	4.67
괴산군	4.71	4.64	4.30	4.14
음성군	5.55	5.33	4.75	4.52
단양군	5.14	5.02	4.77	4.33

8) 주거환경

주거환경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감 항목에서는 보은군과 진천군이 4.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괴산군(4.59)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편의시설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천군(5.10)이 높은 반면, 괴산군(4.17), 옥천군(4.23)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주변 환경의 깨끗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은군과 단양군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천군(5.44)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청주시(4.35)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음이 없이 조용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은군(5.57)과 진천군(5.47)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청주시(4.31)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8〉 주거환경의 시군특성 및 유형



	주택만족	편의시설	환경깨끗	소음조용
충북전체	4.85	4.55	5.14	5.13
청주시	4.75	4.65	4.35	4.31
충주시	4.92	4.80	5.25	5.22
제천시	4.86	4.58	4.79	4.92
청원군	4.67	4.60	5.09	5.14
보은군	4.98	4.40	5.45	5.57
옥천군	4.88	4.23	5.08	5.01
영동군	4.75	4.68	5.09	5.03
증평군	4.94	4.31	5.40	5.36
진천군	4.98	5.10	5.44	5.47
괴산군	4.59	4.17	5.19	5.10
음성군	4.93	4.64	5.34	5.27
단양군	4.95	4.39	5.45	5.44

주거환경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1사분면에 동떨어져 있는 청주시는 환경의 깨끗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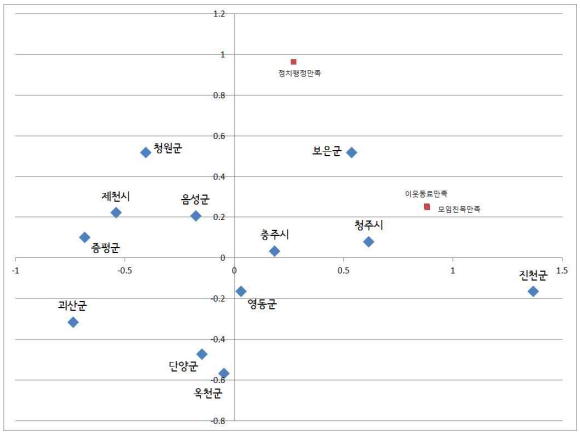
소음의 정숙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에 진천군은 2사분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세부지표 대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편의시설과 주택만족도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괴산군은 청주시와는 반대로 주택만족과 편의시설 부문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9)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 부문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환경의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보면, 거주하는 지역의 이웃에 대한 만족도는 진천군(5.02), 보은군(4.9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증평군(4.43), 단양군(4.54)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정치 및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진천군(4.55)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주변 동료와의 모임 등 교류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진천군(4.63), 청주시(4.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괴산군(4.10), 제천시(4.2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군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 세부지표 전 부문에서 진천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청주시와 보은군이 세부지표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양군과 옥천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그림 9〉 사회생활 및 공공서비스환경의 시군특성 및 유형



	이웃만족	행정만족	주변모임
충북전체	4.67	4.35	4.36
청주시	4.77	4.41	4.54
충주시	4.61	4.36	4.46
제천시	4.59	4.22	4.23
청원군	4.63	4.18	4.36
보은군	4.95	4.34	4.44
옥천군	4.57	4.46	4.24
영동군	4.64	4.39	4.34
증평군	4.43	4.24	4.36
진천군	5.02	4.55	4.63
괴산군	4.55	4.27	4.10
음성군	4.73	4.29	4.26
단양군	4.54	4.42	4.25

3. 지자체별 삶의 질 특성 및 유형화 분석

거리행렬은 두 시군사이의 거리를 행렬로 표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 행렬을 사용하였다. 거리행렬은 상관관계의 거리척도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각 삶의 질을 구성하는 9개 삶의 질 부문 전체를 고려한 시군간의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다. 분석결과, 청주시가 여타 다른 시군과의 상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군간 삶의 질수준의 거리행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청주시	.000											
충주시	1.072	.000										
제천시	1.402	1.189	.000									
청원군	1.129	.898	.443	.000								
보은군	1.491	1.213	.710	.697	.000							
옥천군	1.168	1.093	.722	.518	.779	.000						
영동군	1.353	1.353	.494	.563	.583	.765	.000					
진천군	1.606	1.069	1.262	1.081	.902	1.333	1.210	.000				
괴산군	1.615	1.556	.640	.770	.992	.673	.731	1.681	.000			
음성군	1.197	.711	.899	.565	.831	.891	.940	.797	1.270	.000		
단양군	1.475	1.263	.517	.613	.473	.727	.497	1.203	.737	.862	.000	
증평군	1.467	1.038	.603	.493	.720	.673	.740	1.067	.873	.704	.67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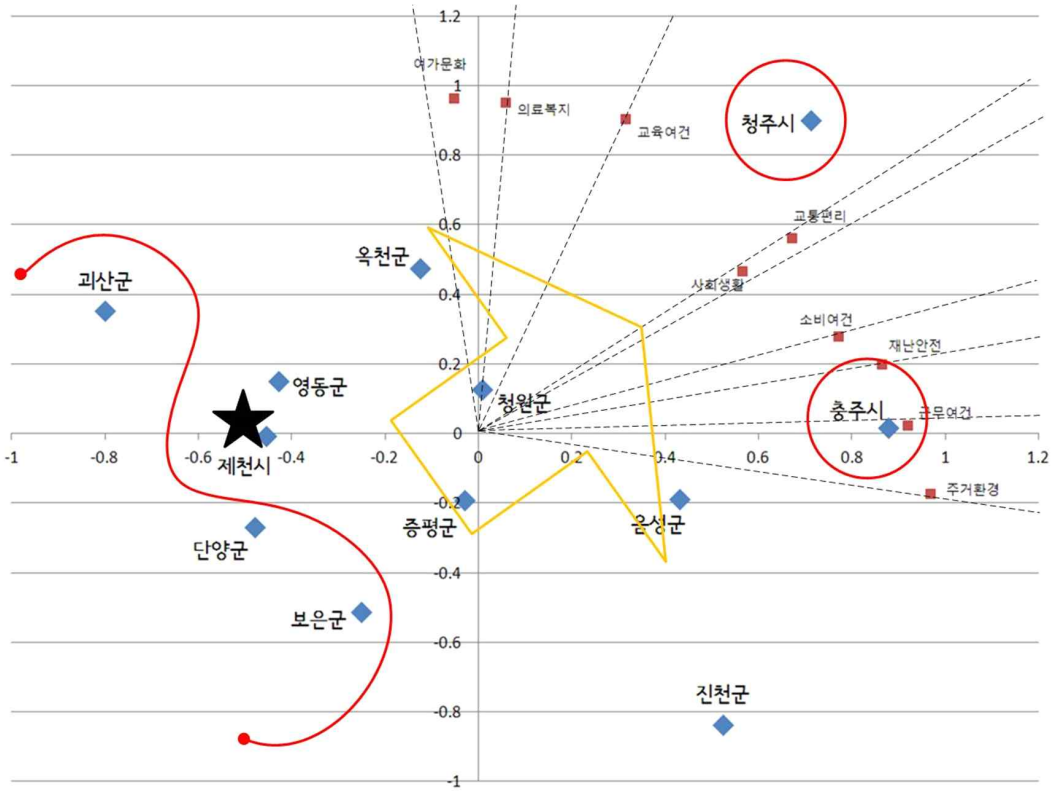
다차원척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5와 같다. 다차원척도법에서는 개체 간의 근접도 척도 집합 구조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개념적 저차원 공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진 유사성 측도와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되도록 이 공간의 특정 위치에 관측값이 할당된다. 다차원척도에서는 스트레스값을 통해서 모형이 얼마나 유사한 집합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정규화된 원래 스트레스(Normalized Raw Stress), 스트레스-I, 스트레스-II, S-스트레스의 4개 스트레스 값은 자료의 부적합성(misfit)을 나타내며, 설명되는 산포(Dispersion Accounted For: DAF)와 Tucker의 적합계수 값(Tucker's Coefficient of Congruence)은 적합성(fit)의 정도를 나타낸다. 스트레스의 값이 최소 0~최대 1사이의 값이면 좋은 결과임을 의미한다.

〈표 5〉 다차원척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정규화된 원래 스트레스	0.02
스트레스-I	0.14[a]
스트레스-II	0.34[a]
S-스트레스	0.03[b]
설명된 산포	0.97
Turcker의 적합계수	0.98

a.최적척도요인=1.022 ; b.최적척도요인=0.960

〈그림 10〉 삶의 질 특성에 따른 지자체 유형화 결과



첫째, 청주시와 충주시와 같은 도시유형(유형 A)은 타 시군에 비해 가장 먼 곳에 위치하여 차별화 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이면서 도시화된 특성을 가진 도시들로서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차별화 된다. 보건복지, 여가문화, 교육여건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나 소득소비, 근무여건 등은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둘째,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과 같은 성장유형(유형 B)은 청주와 충주시와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생활여건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근무여건, 재난안전, 주거환경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 보여주고 나머지 분야에서도 중위권 정도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중심점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때, 충북의 시군들 중에서 평균정도의 삶의 질 수준을 시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최근 인구수와 사업체수가 증가 하면서 충북 시군들 가운데 가장 성장하는 시군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옥천군, 영동군과 같은 대도시 근처의 농업유형(유형 C)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시군은 대전시라는 대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특징을 갖고 있다.

넷째,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과 같은 자연친화 유형(유형 D)은 교통여건이 만족도가 가장 낮고 여

가문화, 보건복지 등 전반적으로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천시의 경우, 충북에서 인구로 보면 큰 도시이지만 실제로 주거만족도는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충북 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한 결과, 4.59/7.0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편차가 크지는 않았으나 주거환경 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문화부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체 32개 세부지표들 중에서 주변 환경의 깨끗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생활과 지역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진천군, 충주시, 청주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의외로 제천시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의 정착과정에서 삶의 질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며, 남부의 보은군, 영동군, 중부의 증평군, 북부의 단양군이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삶의 질의 수준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도시와 농촌, 산업구조, 지역적 인접성, 주변 도시여건 등이 격차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여가문화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재정적인 이유로 관련 시설의 신규조성이 어렵다면 찾아가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조건은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스트레스해소, 적정 노동시간, 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은 직업선택 및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계층/지역 간 교육기회가 차이나지 않도록 실태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건강한 삶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시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보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가족 간 불화완화,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재난안전 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대도 중요하다. 다섯째, 향후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치열한 경쟁, 경제 및 생활환경 격차 심화 등이 예상되지만 그 가운데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경제 성장전략으로부터 사회통합을 고려한 건강, 안전, 환경, 형평성 등 '삶의 질' 추구로의 가치전환을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삶의 질 개선이라는 새로운 자원배분 원리에 따라 정책 및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4가지 유형별로 보면, 먼저 청주시와 충주시와 같은 도시유형은 앞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생활이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과 같은 성장유형은 인구 및 사업체수가 증가하면서 확장되는 시군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옥천군, 영

동군과 같은 대도시 근처의 농업유형은 근처 대도시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간의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전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과 같은 자연친화 유형은 보건복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 여건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삶의 질과 지표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기존의 국내외 연구나 보고서에서 삶의 질 평가지표로 활용된 지표들을 선별하여 충청북도 각 시군에 적용한 실천적인 성격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각 지표별 중요도는 동일하다는 전제로 분석되었으며, 가중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다차원척도법의 경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범위이며 교통, 환경, 소득, 안전 등에 관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지표의 변화 추세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질 구성에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세부지표들 중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창민·양기근. (2010). 제주특별자치 도민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연구. 제주발전연구원.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한국인의 생복과 삶의 질,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2009).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김진아·변병설·조희선. (2015). 주민의 삶의 질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149-169.

김진욱. (2000). 서울과 OECD 국가의 도시간 삶의 질 비교 분석, 서울도시연구, 1(1): 3-18.

김현식·박세훈. (2005). 삶의 질이 도시의 질이다, 「국토정책」, 제85호, pp.1-4.

박대식·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이경태·권영주. (2010).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1): 97-132.

이상호. (2008).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한 농어촌 지역별 유형분류 및 요인분석, 「농촌경제」, 31(4): 33-48.

이승철. (2011). 도시유형별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5(2): 97-119.

이지은·이재완. (2014). 지역주민의 삶의 징에 관한 주관적 의식분석, 「지방정부연구」, 18(1): 515-541.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임정빈·최재녕·홍근석. (2012).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통한 삶의 질과 지역이주 간의 관계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3): 217-242.

정선기. (2007). 2007 대전 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통계청. (2016).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Frisch, M.B., J.Cornell, M.Villamueva and Retzlaff,P.J. (1992). *Clinical Validation of the Quality of Life Inventory: A Measure of Life Satisfaction for Use in Treatment Planning and an Outcome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4: 92-101.

George, L.K. (1992). 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Noll, Heinz-Hervert, (2004).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Genov, Nicolai Ed. Advances in Soci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OECD. (2014). Better Life Index 2014 (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Pavot, W., and E. Diener,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Rice,R.W. (1984). *Organizational Work and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pplied Social Psychology Annual, 5: 155-178.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Veenhoven, Ruut.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http://www.unicef.org/policyanalysis/index_68637.html.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756&langId=en.

배민기(裵珉埼): 현재 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도시안전, 산림휴양 등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재난안전정책 발굴, 환경보전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중이며 "GIS를 이용한 도시공원 입지의 형평성평가"(2013), "수변경관의 복원가치 산정"(2013), "기후변화 대응기제로서 산림의 효과"(2013) 등의 논문이 있다(mkbae@cri.re.kr).

조택희(趙澤熙):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로는 "복권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2013), "지역의 산업별 수출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14), "문화산업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설화의 경제적 가치추정"(2015), "패널분석을 이용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2016) 등이 있으며 국제경제, 지역경제, 경제교육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다(choth@chungbuk.ac.kr).

〈논문접수일: 2016. 9. 26 / 심사개시일: 2016. 10. 11 / 심사완료일: 2016. 11. 3〉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Quality of Life in Chungbuk Province

Bae, Min-Ki

Cho, Taek-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quality of life (QO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 Chungbuk province.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gathers 32 QOL indicators data by questionnaire survey among 12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calculation, the QOL level of Chungbuk Province was 4.59/7.0, and Jinchoen-city had highest QOL level. This study categorizes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ir QOL characteristics using Euclidean distance and presents QOL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on the x, y coordinates using facto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in order to figure out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QOL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Based upon these analyses, this study categorizes local governments into four groups – urban type, growing city type, rural community type, and nature friendly city type. These results can provide local governments with QOL policy building such as the decision of policy priority and distribution of budget.

Key Words: Quality of Life Indicators, Euclidean Distance, Multi-dimensional Scaling, Tailored Policy, Satisfaction